

“삶 항상 시키고 희망을 주는 군정”

일자리 창출 · 민생안정 최우선 ...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제공되는 수평적인 일자리 증점

신년대담 / 황종국 고성군수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고성군 행정을 이끌고 있는 황종국 군수에게 새해 군정의 주요 방향과 근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신년대담은 서면 질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정치적인 문제 등 몇가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고성군민과 창간 1주년을 맞은 고성신문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는 군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향상시키고 희망을 주는 군정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고성신문이 지역언론매체로서의 자긍심과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즐겁고 밝은 소식들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성신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한해 군정을 돌보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을 꼽으시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지난 2011년 한해를 돌아해보면 국제금융 위기, 고유가 지속 등 여전히 불안한 국제환경과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고성군은 군정 제1의 역점 시책으로 명태의 고장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주민의 사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냉동명태 1,800여톤을 직수입해 전량 판매를 마쳤으며, 기존 명태와의 차별화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청정지역 고성에서 해양심층수와 바닷바람으로 말린 명품 『고성태』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정연수원이 지난 2008년 4월 고성군 유치가 확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져 많은 군민들이 실의에

빠졌으나, 전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2011년 9월 드디어 국회에서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확정의지를 표명, 금년도 정부예산에 30억원이 확정되어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군이 전국 670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0점 만점에 8.38점으로 전년도보다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금년도 청렴도 결과 고성군은 종합청렴도 8.38점으로 지난해에 7.42점에 비해 0.96점 상승하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수준에서 금년도 중상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고성군에서는 그동안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행동강령 준수 서약, 직장내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실천된 고성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공직자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신뢰받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새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꼽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고성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년대비 125% 증가한 88억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희망근로·청년인턴 등 서민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분야, 공공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7억원을 투입해 48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저소득 서민계층과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함은 물론 공공숲가꾸기, 산불감시, 산불전문 진화대 등 산림보호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분양중인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의 조기 완공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한사람에게 다수의 일자리가 가는 수직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일자리의 기회가 제공되는 수평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아갈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기업투자 유치, 특화산업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경기회복의 운기를 온 군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관광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우선 지역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고성군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소득창출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해 농산물 마케팅지원 강화, 선도농가 경영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정착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기후변화와 한미 FTA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여건에 대응하여 특성화·차별화·명품화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김치, 버섯재배 등 차별화된 지역특화상품 개발 지원은 물론,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인삼 IT지킴이 등 신기술 보급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죽영면의 삼봉권역, 토성면의 무릉도원권역, 거진읍의 건봉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활기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산림휴양문화 시대를 맞아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우리군의 청정자연환경에 맞는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즐겨찾도록 함으로써 산림치유관광 소득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원계곡, 진부령계곡 등 자연계곡이 우수한 주변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밀그림을 그리고,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공직자 청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해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